

## [ 바 득 ]

# 이세돌 9단, 시련의 계절

신안 출신 이세돌 9단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잇따라 패하는 등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고, 자칫 한국기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최근 기사직 휴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퇴를 더욱 과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기원 등에 따르면 이세돌의 친형인 이상훈 7단이 “이세돌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 대국을 계속할 상황이 못 된다. 함께 고심 어린 숙고를 거듭한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19개월째 연속 국내 랭킹 1위인 이세돌의 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세돌은 현재 국내외 각 2개씩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6일 후지쓰배 8강전, 9일부터는 TV아시아선수권전 등 국제대회도 출전이 잡혀 있다.

바둑계의 가장 큰 걱정은 이세돌의 슬럼프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세돌은 지난해 상금왕과 2008 바둑대상 최우수상을 차지하면

잇단 ‘튀는 행동’에 프로기사회 징계 결의…이사회 결정만 남아

정신적·육체적 피로 속 슬럼프까지 겹쳐 ‘기사직 휴직서’ 제출

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과거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세돌은 지난 1월에 제13회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대회 2연패와 통산 10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일궜다.

또 이어진 제52기 국수전에서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센풀’의 위력을 국내외에 여과 없이 뿐만 아니라 2월 들어 갑자기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박스스페 천원전 결승에서 강동윤에 3-2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고, 이어진 LG배 결승에서는 라이벌인 중국의 구리 9단에 2-0으로 맹없이 무너졌다.

3월에도 KBS바둑왕전에서 이창호 9단에 2-1로 패해 또다시 준우승에 그쳤다. 4월에는 화

제가 된 제1회 BC카드배에서 결승에 오르지도 못하고 본선 4강으로 만족해야 했다.

올해 이세돌의 전적은 17승8패(승률 68%)에 불과해 다섯 6위로 처진 상황이다.

슬럼프가 길어지면서 스트레스 탓인지 튀는 행동도 잦았다. 한국기원 프로기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이세돌의 돌출 행동은 ▲이세돌의 한국 바둑리그 불참 ▲중국바둑리그에서 받는 대국료 중 5%를 기사회에 내지 않는 문제 ▲기보 저작권을 한국기원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 ▲시상식에 불참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 한국기원이 기보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안에 이세돌만이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말 한국바둑리그 시상식에 이 9단이 불참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사 총회는 한국기원의 방침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기사회의 의견은 한국기원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대부분 체택된다.

기사회는 지난달 26일 총회를 소집해 “이세돌이 그간 보여준 여러 돌출행동에 대해 원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건을 찬성 86, 반대 37 표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세돌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한국기원 이사 가운데 상당수가 그의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기사직 휴직과 관련된 한국기원 내규에는 본인이 회망할 경우 1년 단위로 허가한다고 돼 있다.

/오광록기자 kroh@



## 여류기사회, 軍부대에 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양주시 65사단(사단장 허일희 준장) 전보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원 공식 지원 첫 군부대 바둑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여류기사회 회장 김민희 회장(3단)을 비롯해 김해민 5단, 이다혜 3단, 김효정·김선미·고주연·배운진·윤지희 2단 등이 참여해 장병들에게 바둑을 지도했다. <김효정 2단이 한 장 별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아깝다 유신환** 세계아마선수권 7승1패, 준우승 그쳐

유신환(21·양재호 도장) 아마 6단이 제3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유신환은 지난달 30일 일본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에서 막을 내린 제3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 대회에서 페란드와 호주 선수를 연파하며 최종승점 7승1패를 기록했다.

대회 우승은 8전 전승을 기록한 중국의 후이청 아마 8단에게 돌아갔다.

후이청의 우승으로 중국은 30회 대회 동안 17차례나 우승을 거머쥐게 됐고, 일본이 8회, 한국이 4회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라섰다.

후이청의 우승으로 중국은 30회 대회 동안 17차례나 우승을 거머쥐게 됐고, 일본이 8회, 한국이 4회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라섰다.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라섰다.

후이청의 우승으로 중국은 30회 대회 동안 17차례나 우승을 거머쥐게 됐고, 일본이 8회, 한국이 4회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라섰다.

2004년 이강욱, 2008년 하성봉),

홍콩이 1회 우승을 기록했다.

한편 캐나다 대표로 출전한 한국 출신 고주용 아마 7단은 7.8라운드에서 중국과 프랑스 선수에 패하여 5승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최종 순위는 10위.

66개국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한 세계아마바둑선수권 대회는 내년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KIXX 거침없는 질주!

한국바둑리그…바투에 4-1 승, 1위로

광주 KIXX의 초반 기세가 매섭다. 지난해 시즌 내내 리그 하위권을 맴돌았던 KIXX가 2009 한국바둑리그 개막전과 두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KIXX는 지난달 31일 한국기원에

서 열린 이 대회 바투와의 경기를 4-1로 장식하며, 2전 전승으로 리그 1위에 랭크됐다.

최근 2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KIXX는 올해 이창호 9단의 부활과 전력 강화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

부상하고 있다.

이 대회 총상금은 23억8천만원, 우승 상금은 2억원이며 한계임, KIXX, 영남일보, 티브로드, 신안태평천일업, 이플레이온 바투, 하이트진로 등 모두 7개팀이 참가한다.

정규리그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벌어지며, 상위 4팀이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스트시즌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신안태평천일업은 6일 한 게임과 첫 경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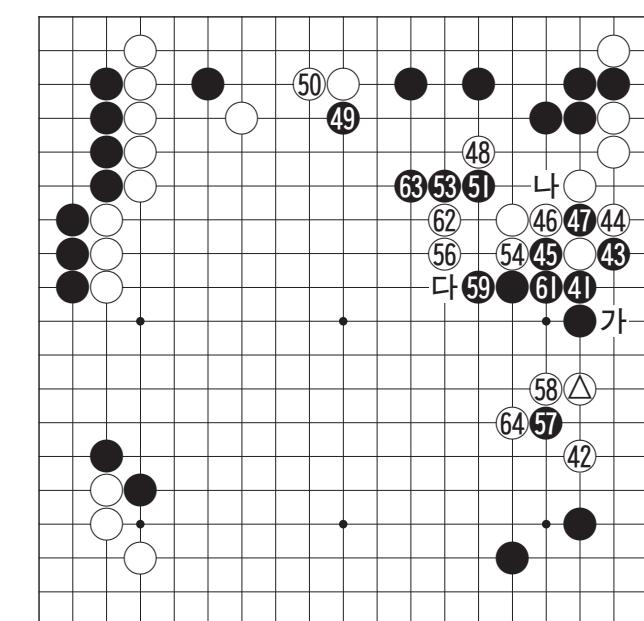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예상치 못한 초강수

1회전 3보(41~64)

白 강창구 5단 黑 허우석 5단  
<주택관리사회> <광주시청>



백 ④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침입이며 흑 ⑤ '가'에 붙이는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41로 치받은 것이나 백 42의 벽립은 절대수라

고 할 정도로 충분히 예상된 수였다.

위쪽의 백 대마는 흑 43의 젖힘에 대해 백 46까지 폐로 알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 강창구 5단의 계산이다.

백 48은 ‘나’에 끊기는 것을 염려한 수비인데 여기에서 허우석 5단은 흑 51로 붙이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 ‘나’에 끊는 수를 강조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이창호, 안형준 꺾고 물가정보배 본선 진출

이창호 9단이 지난 2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B조 본선리그에서 안형준 2단을 맞아 120수 만에 불계승이며 리그 2승을 거두, 각 조에 두장승 주는 본선진출티켓을 일찌감치 거머쥐었다.

이창호는 5월부터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본선 C조 리그에선 홍장식 6단이 박영훈 9단을 168수만에 백불계로 누르고 첫 승을 거두

며 1승1패가 됐다.

박영훈은 2패가 되면서 사실상 자력으로 결선 진출하기 어렵게 됐다.

대회 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으로 본선리그 대국료는 승자 110만원, 패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결선 토너먼트 대국료는 150만원, 제한시간 각자 10분에 초읽기 40초 3회.

/오광록기자 kroh@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로법률 상담 / 경매전문가 무로상담 /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격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건물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드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국수점/아파트 010-2611-5598 주택/재개발 손해원이사 010-9611-2017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건강가 최저가 비고

남성동 대6157,930 43평 34평 76평 5층짜리

성동동 대137,375 19평 20평 5층 유리문

화정동 대33,2174 39평 21 1억원 8평 건물

신기동 대86,2148 59평 23 10평 2층 건물

신안동 대88,2295 87평 23 20평 4층 건물

화정동 대90,2119 59평 23 10평 2층 건물

화정동 대53,21337 48평 21 23평 5평 미트너스나

소촌동 대802,21367 64평 23 23평 7층 마트사우나

화정동 대82,2147 49평 23 3평 미트너스나

화정동 대72,21555 29평 20 2평 디자인아내

신안동 대97,21208 69평 23 4층 8평 원룸 20세대

화정동 대91,21185 49평 23 3평 원룸 17세대

화정동 대54,21455 19평 13 1억원 디자인세대

화정동 대992 30평 8~12평

화정동 대10,2120 19평 5평 7층 2층상가

화정동 대10,2120 19평 5평 7층 2층상가

화정동 대992 30평 8~12평

<div data-bbox="44 10